



그 가운데 6월이 되면 음악 방송에서 자주 듣게 되는 곡이 있습니다. 바로 피아노곡집 <사계>에 수록된 '6월 뱃노래'입니다. <사계(四季) Les Saisons>는 차이콥스키가 1875~1876년에 작곡한 12개의 피아노 소품집으로,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작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.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음악 잡지 '누벨리스트(Nouvellist)'의 발행인인 니콜라이 베르나르드(Nikolay Matveyevich Bernard)가 1876년 1월호부터 12월호까지 매달 그 달에 어울리는 시(詩)와 함께 피아노곡을 신고자 차이콥스키에게 의뢰해서 작곡된 곡들입니다.

이 피아노곡들은 담백하고 간결하면서 전반적으로 로맨틱합니다. 그 중 <1월 난롯가에서>, <6월 뱃노래>, <10월 가을의 노래>가 유명한데, 특히 <6월 뱃노래>는 멜로디가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답다워서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는 물론, 오케스트라용으로도 편곡되어 다양한 형태로 연주됩니다. 당시 누벨리스트 6월호에 차이콥스키의 뱃노래와 함께 게재된 시는 알렉세이 플레셰예프(Aleksey Pleshcheyev)의 시였습니다.

<6월> 해변으로 가자.

거기서 파도는 우리의 발에 키스하리.

별들은 우릴 비춰 주리.

알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.



음악 감상: 오케스트라 버전

표트르 차이콥스키

[Pyotr Ilyich Tchaikovsky]

<사계> 중 <6월 뱃노래>

지휘: 네메 예르비(Neeme Järvi)



또, 미국 가수 앤디 윌리엄스(Andy Williams)는 이 '뱃노래'의 멜로디에 가사를 얹어서 'A different light'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.



음악 감상: A different light



예수성심성월인 6월,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들으며,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성심에 대해 깊이 묵상합니다.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처럼 부드러운 뱃노래의 선율이 우리를 사랑과 평화의 시간으로 이끌지 않을까요?